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연구

- 교직원·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 행정 전공

김 홍 진

2013년 8월

# 제주지역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연구

- 교직원·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인 회

김 홍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홍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梁 鎭 健 인

위 원

박 정 화 인

위 원

이 인 회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 제주지역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연구

- 교직원·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 홍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이 인 회

통합운영학교의 근본적 취지는 학생 수의 부족으로 독립적 운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교육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통합운영 체제로 변화시켜 교육자원 연계 활용, 교육활동 통합 운영, 학생집단 통합 구성 등을 통하여 학교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과 과제는 무엇

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5개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1개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모든 교직원 190명과 한국뷰티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제외한 모든 학부모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생활지도,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및 특정교과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교과담당교사의 학습지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성 계발을 위해서는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기구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내 통합운영학교는 모두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어 문화적 혜택이 덜하고, 초·중 통합은 9년, 중·고 통합은 6년간 집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정체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칫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측면에서 볼 때 통합운영학교는 형제자매의 연계로 인해 가정환경 파악이 용이하고 장기적 관찰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태도 및 심리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급학교 학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급학교 학생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 고학년 학생을 활용한 학교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하급학교 학생의 모방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급간 격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교과 교육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의 효과를 위해 이들 활동의 탄력 운영을 위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통합·운영 지침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의 성패는 학교급이 통합된 학교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는가에 달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학교 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효율적인 교육자원 활용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 및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 복수 자격 소지 교원 확보, 교직원 겸임 발령, 블록타임제 운영을 통한 수업시종의 일치, 초·중등 학생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교구·기자재의 확충, 특별교실 및 기자재 관리자 일원화, 통합운영학교 교구·설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4
4. 용어 정리 .....	4
II. 이론적 배경 .....	6
1. 학교 효과성 .....	6
2. 통합운영학교 .....	10
3. 통합운영학교 현황 .....	16
4. 외국의 통합운영학교 .....	26
5. 선행연구의 분석 .....	40
III. 연구방법 .....	44
1. 연구대상 .....	44
2. 연구도구 .....	46
3. 자료 분석 .....	48
IV. 연구결과 및 해석 .....	49
1.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 .....	49
2.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	54
3.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인사 .....	62
4. 통합운영학교의 행정 및 재정 .....	68
5.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 .....	72

V. 결론 및 제언 .....	77
1. 요약 .....	77
2. 결론 .....	82
3. 제언 .....	85
참고문헌 .....	87
Abstract .....	91
부    록 .....	95



## 표 목 차

<표 II-1> 효과적인 학교의 결정요인 .....	7
<표 II-2> 학교 효과성 관련 변인 .....	8
<표 II-3> 통합운영학교 운영별 유형 분류 .....	14
<표 II-4> 통합운영학교의 유형 .....	15
<표 II-5> 통합운영학교 유형별 장·단점 .....	16
<표 II-6> 3개년(2010~2012) 소규모 통·폐합 육성방안 .....	20
<표 II-7> 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 과정 .....	21
<표 II-8> 전국 통합운영학교 현황 .....	23
<표 II-9>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운영학교 현황 .....	23
<표 II-10> 호주 NSW주의 학교 수업 기간 및 방학기간(예) .....	32
<표 II-11> 호주 통합학교의 초등과정 복식학급 구성 사례 .....	34
<표 III-1> 설문조사 대상 .....	44
<표 III-2> 교직원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	45
<표 III-3> 학부모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	46
<표 III-4> 설문지 문항 구성 .....	47
<표 IV-1> 학력신장 효과 .....	49
<표 IV-2>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	50
<표 IV-3> 사회성 계발 효과 .....	50
<표 IV-4>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 .....	51
<표 IV-5> 생활지도 효과 .....	52
<표 IV-6>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 .....	52
<표 IV-7> 인성교육 효과 .....	53
<표 IV-8>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	53
<표 IV-9>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 여부 .....	54
<표 IV-10>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에 대한 의견 .....	55
<표 IV-11>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 .....	55

<표 IV-12>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	56
<표 IV-13>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 .....	56
<표 IV-14>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 .....	57
<표 IV-15>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 반대 이유 .....	58
<표 IV-16>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 .....	58
<표 IV-17>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 .....	59
<표 IV-18>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 .....	60
<표 IV-19>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60
<표 IV-20>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	61
<표 IV-21>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61
<표 IV-22>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 .....	62
<표 IV-23>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	63
<표 IV-24>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	64
<표 IV-25>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	65
<표 IV-26>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	66
<표 IV-27>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 .....	66
<표 IV-28>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 .....	67
<표 IV-29>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	67
<표 IV-30> 예산 절감 효과 .....	68
<표 IV-31>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 .....	69
<표 IV-32>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 .....	70
<표 IV-33> 중·고 통합운영학교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 .....	70
<표 IV-34>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 .....	71
<표 IV-35>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방안 .....	71
<표 IV-36>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 .....	72
<표 IV-37>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 .....	74
<표 IV-38>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75

## 그 립 목 차

[그림 Ⅱ-1] 호주 통합학교 시간표 사례 .....	33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학교와 학급규모가 과대화 되었으며, 한편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와 학급규모의 과소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학교가 과대 및 과밀화 되고, 반면에 지역주민이 떠난 농·어촌 벽지지역의 학교는 과소 규모 학교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에도 같은 변화를 초래하여, 2012년 4월 현재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52개교로 전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학교 153개교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은 이유로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중점지도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복식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교우관계가 어렵다는 점, 효율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어렵다는 점, 적은 교원수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빈약한 동료장학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수업측면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의 배치가 어렵고, 갈수록 교육환경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도 심각한 실정이다(신상구, 2008).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1981년 9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1982년부터 시행하였고, 1993년 6월 「교육부 통폐합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의 유일한 공공교육기관이며 문화공간인 학교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지역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보다는 폐교 반대를 외치고 저지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임성모, 2008).

이러한 동일 급별 학교간의 수평적 통폐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6년 2월 9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에서는 동일 지역 내

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수직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 1월 13일 당시 교육법 제85조의 2항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 학교의 통합·운영 조항에 근거하여 확실적인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정책은 지양하게 되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수직적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신상구, 2008).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운영구조 개혁에 의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학교급별 간의 소규모 학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김순례, 1999). 이는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추구 및 교육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98년 8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총 102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92개교가 지정되었고 특히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1999년에는 53개교가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998년 신창초·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 통합운영학교 5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1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사회성 계발은 물론 폐교한 소규모 학교의 예산을 통합운영학교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낙후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최희경, 2001). 그러나 통합운영학교에는 초·중등 교육과정 통합 운영의 어려움, 초·중·고 관리자의 학교 관리 부담, 초·중등 교사 교류를 위한 인사기준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동환(2011)은 초·중간 교육과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환경이 다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통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잠복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몇 차례 시도되었다. 1996년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방안연구, 1999년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2010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2009년 11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이러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교 효과성이 있다. 학교 효과성은 학교 조직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제거하여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 교육과정, 학습환경, 기술(학습교구의 현대화), 교원인사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운영학교를 고려했던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2~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 분교, 학생수 20명 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3년간 유보기간 경과 후 통·폐합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개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분교장 개편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5년 이후로 미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 등으로 전국 초·중등 학생수가 2011년 대비 2020년에는 25%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주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확대 국면에서도 분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등과 함께 유력한 통·폐합 유형으로서 통합운영학교 발전 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에도 앞에서 언급하였던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과 과제는 무엇인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둘째, 이 연구는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4. 용어 정리

#### 1) 통합

'통합'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합쳐 하나로 모음, 또는 아동 및 학생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 통일하는 일이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2개 이상의 체제를 하나로 합병하여 기존의 체제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병행하는 혼합된 상태로 병설과는 다른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이란 용어는 통합교육과정, 교육과정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 전후에 분절된 교육내용을 종합적이고 현실의 문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의 의미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이

후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최준렬 외, 1996).

## 2) 통합운영학교

통합운영학교란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교 폐쇄를 전제로 하진 않고 현재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통합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동일한 학교급별 학교간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수평적 통폐합이 아니라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정하되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교류 협력하는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남경미, 2005).

## 3) 학교 효과성

학교 효과성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학교 효과나 학교의 효과성 또는 유효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생산성(productivity),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 체제수준(system level) 그리고 조직 건강(organization health) 등의 개념이 조직 효과성과 병용되어 왔다(김창걸, 1984).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 효과성이란 학교 조직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욕구충족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제거하여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라 할 수 있다(이정애, 2010).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 효과성

#### 1) 학교 효과성의 개념

학교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학교 효과는 표방된 교육목표에 대해서 각각의 학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는데, 제도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단일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성기선, 1998). 그리하여, 대부분의 학교 효과 연구에서는 매우 특수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효과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말한다. 즉, 학교 효과는 상대적 의미의 효과로서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교육성과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는 성공적인 학교(successful school)와 좋은 학교(good school)라는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학교나 좋은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임에도 틀림이 없으나, 그 원인이 대부분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학생의 능력 수준이 원래 높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성취도가 높은 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학교의 효과는 학교의 외적 변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력과 학교가 창출해 낸 운영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학교를 말한다(한대동, 1991).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학교는 주어진 여건은 열악하더라도 학교의 교육력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면, 학교의 인적, 물적 투입여건은 비슷한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풍토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얻게 되는 학생 성취(교육 성과)가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학교를 말한다.

## 2) 학교 효과성의 요인

Rutter와 그의 동료들(1979)은 다음과 같은 학교 과정 변인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학업에 대한 강조의 정도로서 숙제의 효과적인 사용,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 교수에 헌신하는 학습시간의 비율, 교수-학습의 계획, 둘째, 수업에서의 교사의 행동으로서 전체 수업활동의 상호작용, 조용한 분위기의 수업, 수업시간, 교실의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이다. 셋째, 동기부여나 보상체제로서 많은 처벌을 사용하지 않는 합의된 훈육방식, 모든 형태의 보상, 칭찬, 찬사, 넷째, 학생들을 위한 좋은 환경으로서 아이들에게 편안한 가정, 다섯째,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로서는 책임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기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Edmonds(1979)는 효과적인 학교의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장은 교수측면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제공한다. 둘째, 각 학교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학습에 대한 목표에 주력하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 셋째,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익혀야만 한다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넷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교수프로그램과 연결하여 평가하고,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있다. 다섯째, 학습에 도움을 주는 풍토, 즉, 안전하고 질서가 잡혀 있으며, 훈육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다.

Brookover(1979)는 강력한 교장 지도력과 교장의 교실 참여, 학업성취에 대한 교장의 높은 기대, 교장과 교사의 풍부하며 적절한 경험, 학생의 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 인지발달의 강조, 온화하고 반응적인 교사, 부모와 교사간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Joyce와 그의 동료들(1983)은 많은 효과적인 학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학교의 결정 요인들을 <표 II-1>과 같이 사회 조직적 차원과 교육과정 차원으로 나누었다.

<표 II-1> 효과적인 학교의 결정요인

사회 조직적 차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차원
· 교과 및 행동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교과 학습시간의 증대

사회 조직적 차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 준수와 질서 생활</li> <li>· 학생들에 대한 높은 성취 기대</li> <li>· 교사들의 효율성</li> <li>· 철저한 보살핌</li> <li>· 공적인 보상과 유인 체계 적용</li> <li>· 행정적 지도성</li> <li>· 지역사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번한 숙제 검사</li> <li>· 빈번한 학생 학력 향상 검사</li> <li>· 일관된 교육과정 조직</li> <li>· 교수 전략의 다양화</li> <li>· 학생들에 대한 책임 부여</li> </ul>

※ 자료: 이정애(2010 : 33).

Mortimore와 그의 동료들(1988)은 교장의 교원들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지도성, 교감 참여, 교사 참여, 구조화된 일정, 지적으로 도전 가능한 수업, 과업중심적인 환경, 학기 중의 학습 내용에 대한 제한된 강조, 교사와 학생간의 최대한의 의사소통, 철저한 학사관리, 학부모 참여 등 12가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Levine와 Lezotte(1990)도 Edmonds의 5개 요인을 좀 더 구별되는 용어로 다듬어 생산적인 학교문화·풍토, 핵심적인 학습 방법 습득의 강조, 학업향상에 대한 적절한 강조, 단위학교에서의 실천 지향적 교직원 개발, 탁월한 지도성, 두드러진 학부모 참여, 효과적인 수업준비 및 이행,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등 8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Conley(1993)는 학교 재구조화 또는 학교 효과성에 필요한 변인들을 <표 II-2>처럼 Central, Enabling, Supporting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표 II-2> 학교 효과성 관련 변인

Central 요인	· 학생들의 학업성취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평가
Enabling 요인	· 학습 환경(학급당 학생수) · 기술(학습교구의 현대화) · 학교/지역사회 관계 · 시간(수업시간 효율화)
Supporting 요인	· 지도성(학교장, 교사) · 교원인사 · 근무여건(의사결정)

※ 자료: 이정애(2010 : 34).

김병성(1986)은 학교효과를 투입변인과 과정변인을 포함하여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과정변인으로는 학교조직구조, 교육과정 구성 운영, 학구적 풍토, 수업실천을 포함시켰다. 한대동(1991)은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수업 운영, 학업의 강조, 교수-

학습시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질서유지와 규율, 커리큘럼의 편성과 분화, 학생의 참여도와 책임의식, 교사의 근무 충실도, 학부모의 참여도를 포함시켰다.

강태중(1995)은 학교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단위 경영, 교원진용의 안정성, 초점 있는 교육과정, 학부모 참여, 공식적 강화체제 활용, 시간 효율성의 극대화, 제도적 지원체제를 조건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학교풍토로서 교원들의 동료의식과 상호협력, 공동체 의식, 명확한 목적의식과 구성원 상호간의 높은 기대, 질서와 기강 확립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반상진(1995)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학교의 뚜렷한 목적, 교장의 수업·문화적 지도성, 교사의 태도(기대), 수업시간의 효율적 활용, 학교(학급)의 문화·풍토, 학교 조직의 자율적 운영,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교직원의 전문성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요인은 교육비로 통제할 수 없는 학교 내적요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강정삼(1996)은 교장의 수업 지도성, 교사의 수업 운영, 학업의 강조, 교수-학습 시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감, 질서 유지와 규율, 교육과정의 조정, 학생의 참여도와 책임의식, 교사의 헌신, 학부모의 참여도로 제시하였다. 성기선(1997)은 교사의 사기, 교장 지도성, 학습열의,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 교사열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를 과정변인에 포함하였다.

정윤득(1998)은 교장의 수업 지도성,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사의 자율성 인정, 교사의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감,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강화, 학생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분위기, 안정된 학교 환경을 과정변인에 포함하였다. 광수란(2002)은 교장의 수업 지도성, 학교풍토, 학생에 대한 기대를 효과적인 학교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 2. 통합운영학교

### 1)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

통합운영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 수의 부족으로 독립적 운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교육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통합운영 체제로 변화시켜서 교육자원(인적·물적)의 연계 활용, 교육활동 통합(공동)운영, 학생집단 통합구성(학사 운영의 통합)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효과까지도 개선하는 데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0).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교육 내적 필요에서 나온다. 초·중등학교간 통합운영의 가장 큰 필요성은 학교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교원 상호간 수업 지원에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간 협조는 크게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교과상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것이다. 전자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이고, 후자는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로 상치교과목을 해소하고, 소수 학생 지망과목과 과정 개설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협조는 구체적으로 교사에 의한 수업 지원으로 나타난다.

신상구(2008)는 소규모 학교 운영의 단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생 측면에서 적은 학생수로 인한 문화결핍 현상과 복식수업 등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성취욕구, 책임의식, 자율적사고, 협동의식, 발표력 등이 부족하게 되어 학업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교사 측면에서는 한 교사가 2~3개 학년의 수업을 담당하는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부담 과중과 교재연구나 수업준비가 다소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의 교과 외 업무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업의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환경 측면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한 보수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홍후조 외(1999)는 교과 내용의 학년간 계열성과 계속성 확보, 소규모 개별학교가 보유한 교육자원의 열악성 극복,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습기회 확대, 현재의 불합리한 학교간 교원의 수업 협조 개선 등의 이유를 들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영규(1999)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의 적은 학생수로 인해 기본적인 시설·설비가 부족하고, 소수의 교원이 많은 업무를 부담하며,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상치 교과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통합된 유형으로 학교 경영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고, 소규모 학교를 지역의 중심학교로 육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렇듯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지역 학교들이 지닌 부족한 교육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과 교육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이 1997년 1월 13일에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1997년 2월 28일에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초·중학교 통합이 본격화 되었고, 2010년 12월 27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6조(학교의 통합운영) 일부 개정, 2012년 3월 21일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가 일부 개정되었다.

## 2)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방향

홍후조 외(1999)는 농어촌 소규모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통합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합운영의 원리로는 통합운영학교에 맞게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일원화와 학교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통합(교원 조직과 업무 분장의 통합) 및 교내의 교육용 시설 및 설비의 통합을 들었다. 또한 학교의 통합운영은 기본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과 같은 방향으로 실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이질적인 학교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급간에 유연한 연계를 고려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초·중 통합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발생하는 단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에 대한 중학교 예체능 교과 및 영어 과목 등의 수업지원은 확대되어야 하며, 학생에 대한 안정적, 연속적 생활지도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원 간에 수업부담의 증가를 꺼려 상호 수업지원을 하지 않는 풍토나 상급학교 학생의 비행을 하급학교 학생이 모방하는 등의 통합운영학교의 단점은 최소한 축소되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과별 교원의 확보, 교과상치교사의 상존, 학교급 간, 교과 간, 교원 간 담당 수업시수의 격차, 교원의 사기저하, 학교 행사와 각종 특색교육 사업의 한계, 계속적 교육투자 유치 불안 등을 안고 있다. 또한 교육자원 자체도 열악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들에 비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규모 학교의 통합운영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여 학생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풍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학교 통합운영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이런 요구와 희망을 새로운 질 높은 교육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소규모 학교 통합운영이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교육의 여건 및 기회가 제공되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통합운영학교 운영은 병설학교 중 소규모 학교와 동일구내 중·고등학교로서 단설로 운영 중인 소규모 학교, 그리고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이나 지역 여건 상 통·폐합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 3) 통합운영학교의 유형

통합운영학교의 유형은 통합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완전한 통합, 부분적 통합, 형식적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냐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석근(2002)은 통합운영학교의 경영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의 형태를 통합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완전한 통합, 부분적 통합, 형식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완전한 통합이란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합하여 일원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완전통합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 경영을 일원화한 학교 형태를 지칭한다. 이는 통합운영학교를 하나의 교육체제로 인식하고 단위학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호 협력 학교 체제이다. 따라서 완전한 통합운영학교는 일원화된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목표, 교육조직, 교육과정, 교육조건,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초·중등학교라 할 수 있다.

형식적 통합이란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합하되 그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통합이다. 초·중등학교의 형식적 통합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동일한 위치에 건립하여 학교 교육행정가의 통합과 학교를 상징하는 교기, 교가, 교목, 교화 등의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교육목표, 교육조직, 교육과정, 교육평가 부분은 일원화하여 운영되는 영역보다는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많거나, 교육과정 운영상에 상호 협력 체제가 미비한 형태이다.

부분적 통합이란 상이한 두 개의 객체가 하나로 합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통된 요소들은 통합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이다. 초·중등학교의 부분적 통합은 학교경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 중에서 학교실정에 적합한 영역만을 선별하여 통합운영학교 나머지 영역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형태이다. 이러한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영역들을 통합운영하나 교육수요자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을 구분하여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교 형태이며, 또한 연계지도를 위한 완전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어느 일정 부분만으로 협력하는 학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통합운영학교 운영별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통합운영학교 운영별 유형 분류

구분		학교형태	완전한 통합	형식적 통합	부분적 통합
		학교운영위원회		통합(일원화)	분리(이원화)
교육 목표	교육계획서	통합	통합	분리	각 영역을 학교 실정에 적합한 영역만 통합하고 나머지 영역은 분리하여 운영
	교육목표				
교육 조직	교무분장	통합	통합	분리	
	의사결정기구				
교육 과정	예체능, 영어	3~4과목 지원체제	1과목 지원체제		
	재량활동	통합	분리		
	특별활동	부서조직 통합	부서조직 분리		
	방과후 교육활동				
	단위시간	40', 45' 중 택일	초등 40', 중등 45'		
	학습방법	개별토의학습	개별토의학습		
교육 조건	인사 관리	교사연수	통합	분리	
		생활지도	통합	분리	
	재무 관리	장부	통합	분리	
		예산편성	통합	분리	
	시설 관리	시설물	통합	분리	
		교구관리	통합	분리	
교육 평가	학교경영평가	통합	분리		
	교육과정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 자료: 이정애(2010 : 13).

통합운영학교의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운영학교의 형태 분류와는 달리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다.

- A형 : 초등학교(6년) + 중학교(3년)

- B형 : 중학교(3년) + 고등학교(3년)
- C형 : 초등학교(6년) + 중학교(3년) + 고등학교(3년)

이로써 경직된 학교급별 수업연한 운영에서 벗어나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수업연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초·중등학교를 통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은 교육과정의 통합이나 통합교육과정의 통합이나 통합교육과정에서 의미하고 있는 교과통합의 의미를 넘어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뜻한다. 즉,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제도를 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변경한다는 의미로서의 통합이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주변의 환경과 고려한 유연한 교육제도로써 지금까지의 경직된 체제에서 벗어난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음 <표 II-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4> 통합운영학교의 유형

구분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수업연한	· 6 + 3 = 9년	· 3 + 3 = 6년	· 6 + 3 + 3 = 12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교장, 1교감 체제 원칙(각 학교별로 교감배치 기준 적용 가능)</li> <li>· 각각의 학교를 기준으로 교직원 배치</li> <li>·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겸임</li> </ul>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제 교과 운영</li> <li>· 수업시간 40분, 45분 택일(타종 없는 일과 운영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담임 운영</li> <li>· 수업시간 45분, 50분 택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제교과 및 교과담임으로 운영</li> <li>· 수업시간 학교급별로 운영</li> </ul>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 교사 우선 배치</li> <li>·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 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 교사 우선 배치</li> <li>·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 겸임</li> </ul>
재정 운영	· 회계 관리 일원화		
시설·설비 기준	· 학교별 설비 기준을 학생수별 기준으로 적용 (총 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고 적용)		
사무관리	· 일원화		
감독기관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 도교육청

※ 자료: 이정애(2010 : 14).

위의 통합운영학교 유형에 따라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통합운영학교 유형별 장·단점

형태	특징	장점	단점
초·중학교	· 급이 다른 초·중학교 통합	· 방과후 활동 및 특별활동 다양한 편성과 운영 · 초·중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 교육과정 편성과 적용의 어려움 · 이질집단간의 갈등 야기 · 학교명칭 사용의 어려움 및 업무 이중구조 · 학교급이 다른 교장, 교감간의 상호 이해 부족
중·고등학교	· 중·고 통합	· 적정규모 유지 · 교육과정 정상화 · 상치교과 해소 · 중·고교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 같은 고등학교 진학으로 중학생의 학습력 감소 · 업무 이중구조
초·중·고등학교	· 급이 다른 초·중·고등학교 통합	· 방과후 활동 및 특별활동 다양한 편성과 운영 · 초·중·고교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 교육과정 편성과 적용의 어려움 · 이질집단간의 갈등 야기 · 학교명칭 사용의 어려움 및 업무 이중구조 · 학교급이 다른 교장, 교감간의 상호 이해 부족

※ 자료: 이정애(2010 : 15).

### 3. 통합운영학교 현황

#### 1) 통합운영학교 추진 과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농촌연구센터는 2010년 10월 28일에 있었던 통합운영학교 관계자 연찬회에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통해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교육자원의 연계·활용 부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효율성 저하이다. 인

적·물적 교육자원의 연계 부족으로 비정상적 수업 운영(상치과목 운영 등),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중복 재정투자 등의 비효율적 학교 운영 실태를 초래한다고 하여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간, 학교-지역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부족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규모 학교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교육활동 제한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 규모의 영세성(교사·학생수 부족, 시설·설비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의 여러 측면이 제한되어 다양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족 등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및 자원을 확보하여 특색 있고 질 높은 정규 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부담 과다로 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질 높은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 교사는 교재연구, 학습지도 및 평가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적은 교사수로 인해 교사 1인당 업무 분장량이 많아 실질적인 교육 활동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통합학교 운영으로 업무 분장을 통합하고, 직원 공동 연수로 정보교환을 촉진하며, 교사간 협력으로 교사의 교육력 제고를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

넷째, 학교급간 일관된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학교급간 일관된 교육 활동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계열성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학교 운영으로 학교급간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특수목적학교의 특화된 교육영역 강화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제기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6월 본교 학생수 180명, 6학년 이하로서 4km 이내에 인근교가 있는 경우와 분교장 학생수 10명 이하로서 인근에 본교 또는 둘 이상의 분교장이 있는 경우를 통·폐합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제주지역에서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학생수 180명 이하의 19개교를 통·폐합하였고,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폐합 기준이 학생수 100명 이하로 변경되어 23개교를 통·폐합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본교 학생수 60명 이

하, 분교장 학생수 20명 이하의 통·폐합 기준에 따라 분교장 2개교를 폐지하여,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개교(분교 폐지 10개교, 분교장 개편 13개교, 분교장 폐지 21개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왔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합된 학교의 폐교로 인한 지역 주민의 구심점 상실 및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추진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통·폐합의 문제점 및 부작용의 개선을 위하여 1990년대 들어 교육개혁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화된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이 논의되었다. 이는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초·중등학교 운영의 탄력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위한 교원, 시설, 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 보고서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99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1997년 1월 13일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교육법 제85조의 2 항에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2월 28일에는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내용은 1997년 12월 13일 초·중등 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되어 오늘날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이정애, 2010).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의 지정·운영을 권장하여 왔다. 특히 1999년에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당 5억원씩 103개교에 대해 총 515억원을 지원하는 등 통합운영학교의 지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도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통합운영학교의 추진 실적이 감소하여 2001년도에는 통합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환경개선키를 교당 1억 5천만원 ~ 2억원씩 68개교에 120억원을 지원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그리고 호남교육뉴스(2009)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적

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 통·폐합 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 육성방안(2010~2012)'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육성을 위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1. 5.).

첫째,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인사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합운영학교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당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학점제, 무학년제 등) 운영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20개교에 대하여 교당 연간 3천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둘째,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1개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는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지원하고, 학교 시설 폐쇄 없이 기존 인력·시설·용지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는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교육환경 개선경비(10억원)를 지원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급별 수업 단위시간(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원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통합운영학교 중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시범 운영한 후 이를 확대 실시한다.

넷째,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향후 지도·감독에 관한 중복업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이중·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학교 조직 및 교직원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초·중/중·고 통합은 1교장 1교감 체제, 초·중·고 통합은 1교장 2교감 체제로 일반화하여 관리조직을 슬림화한다. 그리고 교무행정 및 교과조직은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초·중 통합은 학교급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중·고 통합은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아울러, 학교급간 겸임발령과 복수자격 소지가 확대 배치를 통해서 수업지원 등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섯째, 재정 및 사무관리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지침 및 교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별로 예산을 구분·편성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나, 향후에는 시·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의 각종 공문서 및 대장관리 개선을 통하여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하게 된다.

일곱째, 시·도별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상세화·내실화하고, 통합운영학교 협력망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정례협의회 개최·우수사례 공유·교직원 연수·워크숍·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제·개정하고 3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50여개의 통합운영학교를 추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 뉴스, 2010). 즉, <표 II-6>과 같이 3년간 500개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 이전, 재배치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농촌여성신문, 2009).

<표 II-6> 3개년(2010~2012) 소규모 통·폐합 육성방안

구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중·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자료: 농촌여성신문(2009. 8. 3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는 2011년 7월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조직 및 업무 특성, 인적·물적 자원 특성, 유형별 통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운영학교의 기초실태를 조사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초·중

· 고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계획 단계, 개교(또는 매년 초) 준비 단계, 운영관리 단계 등으로 나누어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2년 9월에는 통합 운영 재정지원 성과 확인, 우수사례 발굴, 향후 통합운영학교 정책 기초자료 확보, 통합운영학교 발전을 위한 자구 노력 유도를 목적으로 2012년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종합성과평가 편람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학교 68교, 기본프로그램+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학교 21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자체평가, 시·도교육청 주관 평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주관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7>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시행된 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 과정이다.

<표 II-7> 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 과정

연월일	내용
1996. 2. 9.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서 “초·중등학교 운영이 탄력화” 방안의 하나로 통합운영학교 발표
1996. 6.~11.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방안 정책연구에서 통합학교 운영방향 제시 (최준렬 외 2인)
1997. 1. 13.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조항 신설로 법적 근거 마련(교육법 제85조의 2항)
1997. 2. 28.	교육법 시행령(제60조 2항) 개정. 통합기준,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등 인적·물적 지원 체제의 근거 마련
1997. 12. 13	초·중등 교육법 제정 시 반영 -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
1998. 2. 2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정·공포 - 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
1998. 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소규모 학교의 구조 개혁
1998. 8.	대통령 지시사항(적극적으로 추진 지시) - 시·도교육청 관계자 통한 추진 지침 시달
1999. 1.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종합 계획 -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2,078개교 통·폐합 실시
1999.	통·폐합 추진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 예산 지원 - 8개 교육청 103교 : 515억원(교당 5억원) 지원



연월일	내용
1999. 8.~12.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모형개발연구(홍후조 외 3인)
2001.	통합운영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9개 교육청 68교 : 120억원(교당 1.5억원 ~ 2억원) 지원
2010. 1. 5.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발표
201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통합운영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화
2010. 7.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
2011. 7.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기초실태 조사
2012.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 수립
2012. 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안) 검토 의견 수립
2012. 9.	2012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종합성과평가 편람 마련
2012. 9.~12.	2012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단위학교 자체평가, 시·도교육청 주관 평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주관 평가 실시

※ 자료: 김선중(2004).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p. 13~14를 토대로 재구성

## 2) 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전국적으로 2011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 <표 II-8>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중 통합 45교, 중·고 통합 51교, 초·중·고 통합 6교 총 102교가 운영 중이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통합운영학교 102교 중 농산어촌 지역(읍·면·도서벽지) 소재 학교가 97교로 95.1%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5개교로 부산 4교(부산국제중·고, 부산예술중·고, 브니엘국제예술중·고, 덕문중·고), 충남 1교(대천서중·충남해양과학고)가 해당된다.

<표 II-8> 전국 통합운영학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			5	1	6	7	6	6	9		5	45
중·고	4			3		15	9	11	3	5	1	51
초·중·고		4	1				1					6
계	4	4	6	4	6	22	16	17	12	5	6	10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12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지원계획.

제주지역에는 1998년 신창초·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 통합 5교, 중·고 통합 1교 총 6교가 운영 중이다. 통합운영학교 6교 중 농어촌 지역(읍·명·도서벽지) 소재 학교가 6교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9>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운영학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9>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운영학교 현황

유형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지방공무원수	학교회계직원수
초·중	5	45	580	98	27	20
중·고	1	12	303	34	5	6
계	6	57	883	132	32	26

※ 자료: 서귀포시교육지원청(2013).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각 학교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창초·중학교

신창초·중학교는 신창초등학교와 신창중학교를 통합한 학교로 1995년 3월 1일에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한경면 인근 지역의 조수초등학교와 용수초등학교를 통합하였고, 1996년 3월 1일 판포초등학교를 통합하였다. 1998년 3월 1일에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재의 통합운영학교 체제로 전환되어 신축 교사에다 시청각실, 어학실,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도서실,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로 도심 속 여느 학교 못지않은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2011년 3월 1일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급 83명, 중학교 3학급 44명의 학생이 한 울타리에서 “꾸준히 배워 바르게

행하자”를 교훈 아래 생활하고 있다.

### (2) 무릉초·중학교

1999년 3월 1일 무릉초등학교와 무릉중학교를 통합한 학교로 지역적으로 대정읍 무릉1·2리, 영락리, 신도1·2·3리를 아우르고 있다. 1994년에 무릉동교, 1995년에 영락교, 1998년에 신도교 등을 각각 통합하였고 한때는 9학급 4백명 규모의 학생수를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유치원 1학급 12명, 초등학교 6학급 74명, 중학교 3학급 33명의 학생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초·중 통합교사로서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관, 보육교실 도서관, wee클래스, 체육관 등의 각종 교육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통합에 따른 등하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98년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18일에 초등학교는 학력향상 최우수학교, 중학교는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 (3) 저칭초·중학교

1950년에 개교한 초등학교와 1964년에 개교한 중학교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벽지학교였으나 한때는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으로 편성되어 이상적인 학교 형태를 이루었었다. 차차 농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줄면서 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어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 등이 학교 살리기 노력을 기울여 1999년 9월 1일에 통합운영학교 체제로 전환되었다. 현재 유치원 1학급 12명, 초등학교 6학급 52명, 중학교 3학급 44명의 학생이 “올바른 인간성 형성과 학력 향상에 힘쓰자”는 교육목표를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28일에 초등학교가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에는 중학교가 ‘모다 들엉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3년 연속하여 선정되었다.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는 저지리, 중학교는 청수리에 위치해 있어 교사는 통합되지 않았으며 원거리 통학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4) 신산초·중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5년 3월 1일에 난산분교장, 1998년 3월 1일에 삼달분교장을 신산초등학교로 통합한 과정을 거친데 이어 1999년 9월 1일에 신산초등학교와 신산중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로 출발하였다. 현재 유치원 1학급 6명, 초등학교 6학급 58명, 중학교 3학급 53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총 5,3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통합 교사로 도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어학실, 음악실, 미술실, 영어체험실, 향토자료실, 체육관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 갖추어 놓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2월 11일에 전국 ‘아름다운 학교’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중학교는 2011년 1월 18일에 ‘모다들영 학력향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2012년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5) 우도초·중학교

제주시 우도면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초등학교는 1929년 문을 연 ‘영명의숙’이라는 서당으로 시작되었으며 중학교는 1949년에 연평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하였다. 2000년 3월 1일에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를 통합하였고 연평초·중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다 2010년 3월 1일에 우도초·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유치원 1학급 7명, 초등학교 6학급 71명, 중학교 3학급 32명의 학생이 꿈을 키워고 있으며 총 6,9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통합 교사로 다목적실, 시청각실, 도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미술실, 영어체험교실, 음악실, 체육관 등 최신식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속의 섬에 위치해 있어 교직원을 위한 관사 2개동 28실이 마련되어 있다.

#### (6)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

1953년 11월 11일 고산리 주민의 성금으로 재단법인 고산학원을 설립하고 1954년 4월 2일에 고산중학교가 개교되었으며 1969년 3월 8일에 고산상업고등학교가 개교되었다. 2002년 6월 4일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로 고등학교명이 변경되고 학과가 개편되었고 2003년 3월 1일에 공립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산중·고등학교로 통

합되어 제주도 내 유일한 중·고 통합운영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24일에 토탈뷰티 특성화고등학교로 승인되었고 2008년 3월 1일에 고등학교명이 현재의 한국뷰티고등학교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12월 30일에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83명, 고등학교 9학년 220명의 학생이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통합 교사로 시청각실, 과학실,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컴퓨터교육실, 뷰티실습실, 기술가정실, 모둠학습실, 다목적강당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2010년 10월 27일에 중학교가 ‘모다들엉 학력향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고등학교는 2010년 10월 8일에 대한민국 좋은 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7일에는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4. 외국의 통합운영학교

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이 각 주별로 다양한 학교급이 허용되기도 하고, 영국과 같이 전통적인 중·고 통합운영에 의한 사립학교 전통이 강한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까지 초, 중, 고 별로 고착된 학교 유형이 우리와 비슷하여 통계상으로 분류할 만큼의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개혁에서는 중·고 일관 교육을 주창하고 있으며, 중학교 3년간의 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을 준비하고 고교 3년간을 통해 대학 교육을 준비하는 식의 쫓기는 교육이 아닌, 6년간의 중·고 일관 교육을 통해 여유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홍후조 외, 1999).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의 합리적인 운영에 참고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 호주, 일본의 통합운영학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

미국의 학교제도는 일반적으로 6-3-3-4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나 교육구(school district)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요구와 형편에 따라 학제를 다양하게 운

영하고 있다. K-2, K-3, K-5, K-6, K-8, K-12와 같이 학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가 무엇이냐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6-3-3-4제의 학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합해 운영하는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라 할 때 미국에서도 이런 정신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가 K-8초등학교와 통합 중등학교(Combined Junior-Senior High School)(Wikipedia, 2011)이다.

미국의 통합운영학교는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도심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2000년초부터 필라델피아의 Keith Look(2001) 등에 의해 K-8초등학교를 확대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증가하여 왔다. K-8초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을 합해 운영하는 학교이다. 초등학교가 학교의 규모도 작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많고, 학교의 교육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주장에 의해 중학교를 초등학교에 합해서 운영하는 K-8초등학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중학교와 소규모 고등학교가 따로 운영될 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합해 하나로 운영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Wikipedia, 2011).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K-8초등학교만큼 연구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미국의 통합운영학교의 하나의 모델이다. 따라서 미국 교육제도 중 통합운영학교의 대표적 특성을 갖는 K-8초등학교와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특징을 보다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K-8초등학교

K-8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8학년까지 있는 학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20년대까지는 고등학생의 80%가 K-8초등학교 출신이었는데, 1960년대에는 동일한 비율의 고등학생이 6년제 초등학교 출신이었다. 6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제 초급고등학교, 3년제 상급고등학교에 재학하였다(Alexander & McEwin, 1989). 이런 경향이 1960년대 중반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초급고등학교 대

신에 중학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중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은 초급고등학교는 상급고등학교와 유사하게 교과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과 운영방법을 융통성 있게 하며, 초급고등학교보다 선택과목이나 탐구학습이 많다(Paglin & Fager, 1997).

중학교가 확산되는 경향은 1990년대 필라델피아 교육재단(Philadelphia Education Fund)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Keith Look의 K-8초등학교의 연구에 의해(Look, 2001) K-8초등학교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6학년, 7학년, 8학년의 중학교로 운영되던 학교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K-8초등학교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중학교를 K-8초등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이의 결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K-8초등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는 「K-8초등학교 대토론회」(Look, 2001)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8초등학교가 공장처럼 판에 박힌 교육을 수행하는 대규모 중학교의 개선대안이 될 수 있으며, 둘째, K-8초등학교는 9년 동안 교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에 형제와 자매를 함께 보내고,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직원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더 만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 6~8학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없이 동생들이나 후배들의 보호막이 되고 모범이 되며, 다섯째,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과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할 수 있다. 이는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의 경우 5학년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에 대해 6학년 선생님에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상급학교로 진급하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향상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다.

K-8초등학교는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초등학교에 중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중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K-5까지는 담임학급으로 운영하고 6~8학년은 중학교와 같이 교과담임으로 운영한다. 교과학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중학교와 같이 학생에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교과학급을 운영하기 보다는 담임학급과 교과학급이 합쳐지는 형태를 띠며, 6학년은 담임학급의 성격이 강하고 8학년은 교과학급의 성격이 강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격을 조합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무리 없이 적응하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학교가 K-8초등학교이며, 이런 특징은 학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부의 학교에서는 6~8학년을 중학교와 같이 교과학급으로 운영하기도 한다(한국농촌연구센터. 2012).

## (2) 중·고 통합운영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와 학교를 합했기 때문에 Combined School이라 하며, 초급고등학교와 상급고등학교를 합했기 때문에 Junior/Senior High School이라 한다.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주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방과후 특별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별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중학교를 고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한국농촌연구센터. 2012).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운영방식이 학교에 따라 다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완전히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1)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완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

D'Evelyn Junior/Senior High School은 콜도라도의 Jefferson Country에 있는 공립학교이다. 1993년에 콜도라도 현장학교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수가 적은 7~8학년의 Dennison 중학교를 K-8초등학교로 통합하려고 하였다. 이때 일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통합하기 보다는 고등학교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런 제안이 교육위원회에 받아들여져 1994년 4월 4일에 통합학교가 설립되었다.



통합학교가 됨에 따라 학교의 행정과 교육과정이 모두 통합되었으며, 6년을 기간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장은 1명이고 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콜도라도주의 경우 전공담당 강의 비율이 83%인 것과 비교하면 상치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이점이 있었으며 축구, 야구, 농구, 미식축구, 크로스컨츄리, 트랙, 필드, 골프 등 다양한 특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한국농촌연구센터, 2012).

## (2)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

오클라호마의 톨사시에는 중학교를 없애고 고등학교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별개의 학교로 운영되었던 중학교(Middle School)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학교가 별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학생들에게 기하, 스페인어Ⅱ 등을 가르치고 싶어도 중학교의 여건에서는 불가능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Middle School)를 없애고 중학교를 초급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로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상급고등학교에 통합되면서 교장과 행정실 등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건물에 복도에 붉은 선을 그어 한 쪽은 초급고등학교, 다른 한 쪽은 상급고등학교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초급과 상급고등학교별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다르고, 교육과정도 달리 운영하며, 급식실도 달리하였다. 통합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과 교장, 행정실, 교원 등으로 교원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었다.

톨사시의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한 지붕 두 학교와 같이 운영되지만 행정실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었다. 톨사공립학교에 관한 연구의 결과 진학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의 탈락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고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Sims, 2011).

## 2) 호주

호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 중등학교 교육을 통합한 12년 혹은 13년의 교육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학교 형태를 통합학교(Combined Schools 혹은 Composed Schools)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학교는 주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NSW주의 공립 통합학교들은 주로 Central 혹은 Community School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통합학교의 개념을 한국의 상황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학교급이 통합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학교 유형'으로 적용할 경우 호주의 모든 학교들은 통합학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주의 모든 학교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통합학교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 학교의 첫 번째 통합적 특성은 모든 초등학교들이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통합 유형은 호주의 중등학교들은 한국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12학년 과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의 통합적 특징은 호주 교육법(Education Act, 1990, 제2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학교(Combined Schools 혹은 Composed Schools)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호주 NSW주의 공립 통합학교인 Central School은 호주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들의 통폐합의 결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탐색은 한국의 통합운영학교 운영 개선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 NSW주의 공립 통합학교인 Central School을 중심으로 이들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 (1) 호주의 통합학교(Central Schools) 운영의 일반적 특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학교들은 통합학교 뿐 아니라 보통의 학교들도 대부분 유치원 과정과 초등교육 과정, 혹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등을 통합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급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

합적 특성을 갖는 학교가 혼란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을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운영상의 특성이 계획·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통합 학교 혹은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교의 몇 가지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혹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수업기간을 동일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NSW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준수하는 학교 수업 기간 및 방학 기간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표 II-10>에는 NSW 주의 동부 지역 학교 수업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모든 공립학교들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이 기간(school terms)을 준수하고 있다.

<표 II-10> 호주 NSW주의 학교 수업 기간 및 방학기간(예)

학기(Terms)	개시일	종강일
Term 1 (교사 등교일)	2012년 1월 27일(금)	2012년 4월 5일(목)
(학생 등교일)	2012년 1월 30일(월)	2012년 4월 5일(목)
방학		
Term 2 (교사 등교일)	2012년 4월 23일(월)	2012년 6월 29일(금)
(학생 등교일)	2012년 4월 24일(화)	2012년 6월 29일(금)
겨울 방학		
Term 3 (교사 등교일)	2012년 7월 16일(월)	2012년 9월 21일(금)
(학생 등교일)	2012년 7월 17일(화)	2012년 9월 21일(금)
방학		
Term 4 (교사 등교일)	2012년 10월 8일(월)	2012년 12월 21일(금)
(학생 등교일)	2012년 10월 8일(월)	2012년 12월 19일(수)
여름 방학		

※ 자료: 한국농촌연구센터(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둘째, 통합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을 block time제로 운영하여, 학교급(교육과정 단계)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시간 배정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학교급에 관계없이 통합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시간,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학교시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그림 II-1]은 통합학

교의 block time제에 의해 구성된 시간표(time table)의 한 예이다.

	Mon 1	Tues 1	Wed 1	Thurs 1	Fri 1	Mon 2	Tues 2	Wed 2	Thurs 2	Fri 2
AM										
FORM ASSEMBLY	FORM JF A2		FORM JF A2		FORM JF A2	FORM JF A2		FORM JF A2		FORM JF A2
PERIOD 1	GER HBE C8	HMN JRS A2	ENG JRS A2	HMN JRS A2	MUS GD A3	GER HBE A2	HMN JRS A2	MATH JF A2	PE JF ECA	MUS GD A3
RECESS										
PERIOD 2	ENG JRS A2	PE JF ECA	SCI JF X10	GER HBE A2	PE JF A2	SCI JF E8	WOOD RR T5	HMN JRS A2	GER HBE A2	PE JF A2
PERIOD 3	MATH JF A2	MATH JF A2	MATH JF A2	WOOD RR T5	ENG JRS A2	MATH JF A2	ENG JRS A2	SCI JF X10	ART TDU D8	ART TDU D8
LUNCH 1										
LUNCH 2										
PERIOD 4	SCI JF E7	WOOD RR T6	PE JF ECB	MATH JF A2	HMN JRS A2	ENG JRS A2	MATH JF A2	PE JF ECA	WOOD RR T5	ENG JRS A2
PM										

※ 자료: 한국농촌연구센터(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그림 II-1] 호주 통합학교의 시간표 사례

셋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원들은 교원 자격에 따라 초등학교급과 중등학교급으로 구분하여 가르칠 교육과정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단계인 early stage 1에서 stage 3까지를 지도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인 stage 4에서 stage 6까지의 교육과정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통합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부족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식학급(composit class)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표 II-11>는 호주 통합학교의 초등과정 복식학급 구성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치원 과정에서 6학년까지의 7개 과정을 8개의 학급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치원과 1학년, 4학년과 5학년은 각 한 학급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 일부, 5학년 일부와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4개의 복식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학급당 학생수를 19명에서 27명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11> 호주 통합학교의 초등과정 복식학급 구성 사례

학급명	학년	학년별 학생수	학급별 학생수
K	K	21	21
1	1	19	19
1/2 (복식학급)	1	10	24
	2	14	
2/3 (복식학급)	2	12	26
	3	14	
3/4 (복식학급)	3	16	26
	4	10	
4	4	27	27
5	5	26	26
5/6 (복식학급)	5	3	27
	6	24	

※ 자료: 한국농촌연구센터(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 3) 일본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학교 교육제도의 본연의 자세 재검토’를 시점으로 하여 공교육 전체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학교나 교직원의 생각, 직무에 대한 본연의 자세 등의 변혁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초·중 일관교육을 구상하였다. 초·중 일관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9년간을 일관된 커리큘럼으로 편성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달 단계나 적성, 학력에 부응하는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아동들이 자유롭고,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이다(홍광식, 2009).

한편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서 학생 개인의 개성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제도화한 학교 유형이다. 특히, 공립학교에 있어서 중·고 일관교육은 종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달리 새로운 특색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사립 중·고 일관학교가 일본식 입시 학원인 주쿠 등의 사교육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시 위주로 선발하는 측면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교육 장점이다(한국교육신문, 2006. 4. 11.)

일찍이 일관학교는 대체로 사립학교였으나 아이들이 발달 성장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을 통합한 공립의 초·중 일관학교가 전국 각지에서 점점 개교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전적으로 다른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을 통합한 공립 중·고 일관학교가 점점 개설되고 있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이렇게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중 일관학교, 중·고 일관학교 등의 운영형태와 학교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초·중 일관학교

유·초·중 일관교육은 취학 전 교육(일반적인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교육), 초등교육(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전기중등교육(일반적인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방식이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유·초·중 일관학교라고 한다. 여기서는 오오이타현 벳푸시립 히가시야마 유치원·초·중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히가시야마 유치원·초·중학교는 시가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풍부한 학교이다. 1998년 히가시야마 초등학교, 분교 2개교, 히가시야마 중학교, 유치원이 통합해서 개교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최초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병설의 12년간 일관교육학교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 내용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사회성이나 소속의식을 기르고 있고, 초·중학교 교사에게 직접 영어·체육 등을 놀이를 통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소규모이므로 가능한 학생 개인에 맞는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사회, 이과,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중학교 교사와 연계하여 세심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는 학생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기초·기본의 정착을 목표로 소규모 특성을 살린 지도를 실시하

고, 초등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개인에 맞는 세심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아와 초등학생도 포함하여 학교 전체를 리드하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주체성이나 자립심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유·초·중 일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초·중학교 교사가 서로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연계에 의한 세밀한 학습지도의 실시, 둘째, 모든 원아·학생의 참가에 의한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의 기획·실시, 셋째, 이연령 집단에 의한 학습을 구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연령 집단 학습에서는 ‘표현활동’, ‘건강활동’, ‘탐구활동’의 세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년간 일관교육을 통해서 생활면에서는 휴식시간이 되면 유치원아부터 중학생까지 함께 어울리는 등 타교에서는 볼 수 없는 아동·학생의 모습이 있으며, 학습면에서는 이연령 집단학습이나 교사의 연계지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키우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면과 학습면에서의 아동·학생들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규율, 협력, 배려심, 참을성(인내성) 등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한국농촌연구센터, 2012).

## (2) 초·중 일관학교

일본의 초·중 일관학교 도입 배경에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중학시대의 특징이 앞당겨 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2년으로 구분한 1~4년, 5~7년, 8~9년의 구분은 사춘기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5년을 하나의 전환기, 사춘기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8년(중2)을 또 하나의 전기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여러 집단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교사와 교육내용상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유연하게, 또 계통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좋은 사회의 형성자를 기르는 새로운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구현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광식, 2009).

학교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현행 6-3-3-4학제가 학생들의 실태에 맞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현 학제가 시작된 1948년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발달이 2~3세 정도 빨라짐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수업의 좋고 싫음,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차이가 생겨나면서 학

력부진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나타났다고 한다.

초·중 일관학교의 실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도문화 차이나 완화를 의도한 것이며, 특히 시설 일체형 초·중 일관학교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초·중학교 교직원이 동거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대된다. 초·중 일관교육의 필요성은 이러한 학생의 발달·지도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학력격차에 대한 대응, 학교 사이즈에 대한 대응, 공립학교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대응 등이 주장되면서 전국의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초·중학교의 접속이나 일관화를 모색하고 있다.

초·중 일관교육은 ‘시설 일체형 초·중 일관학교’, ‘시설 분리 연계형 초·중 일관학교’ 등으로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시나가와구립 이토학원의 경우, 초·중학교가 일체화하여 새로운 시설 일체형 초·중 일관학교가 되었는데 그 때까지 교무분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학년 부터 9학년까지 60명이 넘는 교직원이 기능적·조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학교조직을 발본적으로 재구축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3명의 부교장을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지 않고 1~9학년을 통해서 ‘총무·교무부’, ‘생활·안전부’, ‘학습·진로부’를 담당하고 그 밑으로 각 2명씩 부장을 배치하였다. 교과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동으로 교과부회를 조직하고 있다. 학년 구성은 1~4학년(저학년단), 5~7학년(중학년단), 8~9학년(고학년단)으로 구분하여 각 한년단장을 배치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도 ‘의식적 행사’와 ‘이학년 교류’(총무·교무담당 부교장 소관), ‘특별지원교육’과 ‘학예적 행사’(학습·진로담당 부교장 소관), 그리고 ‘체육적 행사’와 ‘보건식육’(생활·안전부담당 부교장 소관)의 6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담당 부교장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시설 분리형 연계학교는 기존의 초·중학교 각각 학교시설, 조직, 운영을 유지하면서 근린 초·중학교가 연계하여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한다. 시나가와구 내 대부분 학교가 이 형태의 연계이며 연계는 각 학교의 실태나 특색에 따라 한 중학교와 한 초등학교의 연계, 한 중학교와 복수 초등학교의 연계 두 가지 패턴의 양상이다. 연계 내용은 각 학교의 실태나 특색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기적인 수업 교류, 교원조직의 연계, 합동행사 등이다.



### (3) 중·고 일관학교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제도화한 학교 유형이다. 심신의 발달·성장이나 변화가 현저하고 민감한 시기에 있는 중등교육에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6년간 일관해서 실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고 일관교육의 이점으로는 첫째,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여유 있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고, 둘째, 6년간의 계획적·접속적인 교육지도를 전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일관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6년간 학생을 계속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넷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연령 집단에 의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성이나 풍요로운 인간성을 보다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6월 “학교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1999년 4월부터 중·고 일관교육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고 일관교육에는 다음의 세 가지 실시형태가 있다.

‘중등교육학교’는 학교교육법에 규정되어 동일 시설 내에서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이며 초·중 일관교육의 시설 일체형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교이다. 중등교육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전기 과정은 중학교, 후기 과정은 고등학교의 학습지도 요령이 각각 준용되지만, 중·고 일관교육으로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병설형’은 중등교육학교와 같이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이며 동일한 설치자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입학선발을 실시하지 않고 접속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중등교육학교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縣)이 현립 중학교와 현립 고등학교를, 시(市)가 시립 중학교와 시립 고등학교를, 학교법인이 사립 중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병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계형’은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설치가 인가되는 학교이며 설치자가 다른 기존의 시정촌립 중학교와 도도부현립 고등학교 간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각 설치자가 설치자 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연계해서 각각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와 현, 시와 학교법인, 다른 두 가지 학교법인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 설치자가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등교육학교는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일관하여 실시하지만, 전기과정·후기과정에 있어서 각각 중학교·고등학교와 같은 목적 및 목표의 달성에 노력하는 것이며, 각각 종래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것이다. 전기과정·후기과정은 교육과정의 구분이며 교직원 조직의 구분이 아니므로 중등교육학교의 교직원은 중등교육학교 전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전기과정·후기과정으로 구분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인 중등교육학교에 배치된다.

중·고 일관학교의 운영사례로서 중등교육학교 형태인 미야자키현립 고카세중등교육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카세중등교육학교는 1994년 전국 최초의 공립 중·고 일관학교로 설립되었다. 학생수 240명, 교직원수 43명, 한 학년 40명의 기숙형 학교이다. 1학년~6학년(1~3학년생을 전기생, 4~6학년생을 후기생이라고 함) 학생 전체가 학교시설 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사 6명이 같이 거주하여 학생의 생활습관의 육성이나 야간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접속을 원활하게 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고 6년간의 계획적, 접속적인 교육지도에 의해 효율적, 일관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고카세중등교육학교에서는 6년간 일관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의 개성·적성 등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학년생부터 6학년생까지 이연령 집단에 의한 6년간의 학교생활 체험을 통해서 사회성, 인간성, 지도성 등을 폭넓게 육성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으로서 보다 좋은 본연의 모습, 살아가는 방법 등을 체득시키고 있다. 또한 기숙형 학교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사회성, 자기관리능력, 자주성, 자립성, 협조성, 인내력, 지도력 등을 폭넓게 육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 5. 선행연구의 분석

1982년부터 실시한 통·폐합 정책은 수평적 통합정책으로써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와 통합하였고, 중학교는 중학교와 통합하였다. 이러한 수평적인 통합정책은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에 소규모 학교를 존속시키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에 따라 학교교육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김용우 외(1992)는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편과정과 놓여진 소규모의 초등학교 소인수 및 복식수업에 대한 고려와 제반 교육과정의 문제 및 교육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 관리,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제반 법령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최준렬 외(1996)는 통합운영학교와 유사한 병설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병설학교와 개념이 다르고 병설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학순(1998)은 교사들은 초·중학교의 통합운영에서 효과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비용의 절감과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과 과대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순례(1999)는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는 운영비보다는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더 많으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은 유형은 중·고 통합으로 제시하였다.

김영수(1999)는 1998년 3월부터 충북단양의 별방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시설물과 기자재의 통합 활용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학교 운영상의 제반 갈등 요소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초·중등학교의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구중필(2001)은 논산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

합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여건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활용, 교원우대 및 사기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수립 등의 선행조건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진우(2001)는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각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계교육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이 나타났으며 시설 측면에서도 통합에 따라 학교 규모의 적정화가 도모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최희경(2001)은 초·중 통합운영학교 형태가 교육과정의 연계, 인성교육, 상치교사 및 복식학급의 해소, 교육활성화 효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에서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쁜 행동의 모방,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서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석근(2002)은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효율적으로 통합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및 영어교과와 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중학교간의 상호교류 협력학습체제와 통합운영학교 교육시설 확보 및 교육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조(2002)는 초·중학교 통합운영에서 예산과 교육재정 절감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높게 기대하지 않았고 교직원 인사의 법적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교육과정의 운영, 통합운영의 효과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탄력적인 초·중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진희(2004)는 교육과정의 연계면에서 초등과 중등교사의 상호지원체제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는 행정실의 경우 이주 업무 부담이 있으므로 통합운영학교에 맞게 일원화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조기수(2004)는 교원조직 측면에서 교원배치, 보직교사배치, 교무분장 통합, 학생생활지도, 의사결정 조직 등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인사관리 측면으로 통합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원연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 및 회계제도 측면에서는 통합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정비의 선결과 행정적 규정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들었고, 시설 및

설비관리 측면에서는 통합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대중(2005)은 초·중 통합학교의 교과운영을 통합에 맞게 운영하려면 초·중 교원의 통합배치, 단위수업시간의 통합운영,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시설의 공동관리 및 관리, 적극적인 교과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교수학습 방법의 연수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행정제도나 법령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신상구(2008)는 초·중 통합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간의 일관된 교육을 뒷받침할 학교 제도로써 통합운영학교의 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별도의 수당, 승진 등의 우선 대우가 주어져야 하며, 행정의 실질적 통합으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적 지도를 통해 통합운영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여 행정과 재정적으로 우선이익을 부여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성모(2008)는 인적·물적 통합은 되어 있으나 학교 명칭과 공인을 분리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수 부족이 교육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교사 통합이나 교차 수업지원은 예체능 및 영어, 일정 부분 통합 효과가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정애(2010)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효과성으로 제시된 Strong 요인, Middle 요인, Weak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운영됨은 물론이고, 상급기관이 일원화되는 관리체계와 학교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사가 겸임발령을 받을 수 있는 교원 인사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에서 연계교육이 잘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통합운영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정소연(2010)은 교원 배치에서 교사들은 초등과 중등 별도로 관리자기 배치되어야 하며 교무 분장을 각각 조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들은 학교교육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시설사용 측면에서 교사들은 현대화된 시설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의 형태, 통합운영의 방향, 통합운영의 경제적 효과, 교육적 효율성과 교육여건 등 통합운영학교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학생생활지도, 행정 및 재정 등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발전을 위한 제 조건과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이미 지정·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차 통합운영학교의 확대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5개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1개 중·고 통합 운영학교의 모든 교직원 190명과 한국뷰티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제외한 모든 학부모 813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6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학교별 설문조사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수는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조사 대상

구분	학교명	학부모							교직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교원	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 직원	계	
초·중 통합	저청초	8	12	13	7	8	14	62	10		1	4	15	77
	저청중	14	20	10				44	9	3	1	1	14	58
	신창초	8	15	12	13	20	15	83	10				10	93
	신창중	24	23	23				70	10	3	2	1	16	86
	우도초	14	11	12	12	10	12	71	10	2	3	5	20	91
	우도중	10	8	14				32	10				10	42
	무릉초	18	11	4	11	17	13	74	8		1	2	11	85
	무릉중	12	6	15				33	11	3	2	2	18	51
	신산초	7	7	8	13	16	7	58	10		1	4	15	73
중·고 통합	신산중	16	15	22				53	10	2	3	1	16	69
	고산중	27	28	28				83	12	3	2	2	19	102
	한국뷰티고	74	76					150	22			4	26	176
합계		232	232	161	56	71	61	813	132	16	16	26	190	1,003

배부된 설문지 1,003부 중 628부가 회수되었고(62.6%),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한 95부를 제외한 53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1) 교직원

교직원의 배경변인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교직원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N=99)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30세 이하	8	8.1
	31~40세 이하	18	18.2
	41~50세 이하	29	29.3
	51세~60세 이하	42	42.4
	61세 이상	2	2.0
성별	남	58	58.6
	여	41	41.4
학력	중학교 졸업	3	3.0
	고등학교 졸업	9	9.1
	전문대학 졸업	6	6.1
	대학교 졸업	37	37.4
	대학원 재학/졸업	44	44.4
교원자격증 유형	초등교원	17	27.0
	중등교원	44	69.8
	초등·중등교원	2	3.2
교직원 유형	교원	63	63.6
	행정직원	36	36.4
근무지	제주시	58	58.6
	서귀포시	41	41.4
근무학교 형태	초·중 통합	84	84.8
	중·고 통합	15	15.2
교육경력	5년 미만	14	14.1
	5년 이상~10년 미만	14	14.1
	10년 이상~20년 미만	15	15.2
	20년 이상~30년 미만	40	40.4
	30년 이상	16	16.2



## 2) 학부모

학부모의 배경변인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부모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N=434)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30세 이하	1	.2
	31~40세 이하	93	21.4
	41~50세 이하	273	62.9
	51세~60세 이하	58	13.4
	61세 이상	9	2.1
성별	남	113	26.0
	여	321	74.0
학력	중학교 졸업	40	9.2
	고등학교 졸업	269	62.0
	전문대학 졸업	43	9.9
	대학교 졸업	70	16.1
	대학원 재학/졸업	12	2.8
거주지	제주시	301	69.4
	서귀포시	133	30.6
자녀 학교 형태	초·중 통합	319	73.5
	중·고 통합	115	26.5
자녀 학년	초등학생	187	43.1
	중학생	163	37.6
	고등학생	84	19.4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자체 제작하였으며 1차로 작성된 설문지를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6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

은 통합운영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재정,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총 38개 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아래 <표 III-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I-4>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설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교육목표	학력신장	학력신장 효과	8, 8-1	2
	사회성 계발	사회성 계발 효과	9, 9-1	2
	생활지도	생활지도 효과	10, 10-1	2
	인성교육	인성교육 효과	11, 11-1	2
교육과정	교육계획서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	1, 2, 2-1	3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3, 3-1	2
		학교급간 수업 지원	4, 4-1, 5, 5-1	4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	6, 6-1	2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7, 7-1	2
교직원 인사	교장	임용방식	12	1
		배치기준	13	1
	교감	배치기준	14	1
	교원	배치기준	15	1
	지방공무원	배치기준	16	1
	업무분장	업무분장 조직 형태	17	1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18, 18-1	2
행정 및 재정	행·재정	예산 절감 효과	19, 19-1	2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	20	1
		지도·감독청 일원화	21	1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22, 22-1	2
발전방안	긍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의 우선순위	23	1
	문제점	문제점의 우선순위	24	1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	25	1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18.0 Ver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행·재정, 발전방안에 대한 문항 분석은  $\chi^2$ 검증과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5개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1개 중·고 통합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설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

#### 1) 학력신장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신장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신장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4.834$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학력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1> 학력신장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2.92	.955	-4.834	.000***
학부모	434	3.44	.976		

\*\*\*  $P<.001$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중등 학생간 학습동아리 통합·운영	3 (30.0)	7 (70.0)	10 (100)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13 (40.6)	19 (59.4)	32 (100)
특정교과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교과담당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6 (33.3)	12명 (66.7)	18 (100)
주요 교과에 대한 겸임교사 배치	3 (21.4)	11명 (78.6)	14 (100)
기타	2 (66.7)	1 (33.3)	3 (100)
$\chi^2(df), p$	3.030(4)		.553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3.030(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32명). 다음으로 ‘특정교과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교과담당교사의 학습지도 지원’(18명), ‘주요 교과에 대한 겸임교사 배치’(14명), ‘초·중등 학생간 학습동아리 통합·운영’(10명), 그리고 ‘기타’(3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2) 사회성 계발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성 계발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성 계발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590$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3> 사회성 계발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4	.939	-1.590	.114
학부모	434	3.51	.925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4>와 같다.

<표 IV-4>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생자치기구의 통합·운영	2 (25.0)	6 (75.0)	8 (100)
학교 행사의 통합·운영	0 (0)	5 (100.0)	5 (100)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12 (46.2)	14 (53.8)	26 (100)
초·중등 학생간 동아리 활동 통합·운영	1 (11.1)	8 (88.9)	9 (100)
기타	1 (100)	0 (0)	1 (100)
$\chi^2(df), p$	8.754(4)		.068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8.754(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사회성 계발 위한 개선방안’으로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6명). 다음으로 ‘초·중등 학생간 동아리 활동 통합·운영’(9명), ‘학생자치기구의 통합·운영’(8명), ‘학교 행사의 통합·운영’(5명), 그리고 ‘기타’(3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3) 생활지도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생활지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5>와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생활지도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789$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5> 생활지도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0	.942	-1.789	.076
학부모	434	3.49	.945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6>과 같다.

<표 IV-6>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교급을 달리하는 교원을 부담임으로 배치	2 (22.2)	7 (77.8)	9 (100)
통합운영학교 생활지도협의체 운영	4 (36.4)	7 (63.6)	11 (100)
통합운영학교 생활지도 교원 연수과정 설치	1 (11.1)	8 (88.9)	9 (100)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 마련	7 (35.0)	13 (65.0)	20 (100)
기타	2 (66.7)	1 (33.3)	3 (100)
$\chi^2(df), p$	4.086(4)		.395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086(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0명).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생활지도협의체 운영’(11명), ‘학교급을 달리하는 교원을 부담임으로 배치’(9명), ‘통합운영학교 생활지도 교원 연수과정 설치’(9명), 그리고 ‘기타’(3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4) 인성교육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7>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536$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7> 인성교육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7	.954	-1.536	.127
학부모	434	3.54	.951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8>과 같다.

<표 IV-8>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중등 학생간 멘토링제 운영	3 (37.5)	5 (62.5)	8 (100)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통합·운영	9 (37.5)	15 (62.5)	24 (100)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통합·설정	1 (6.7)	14 (93.3)	15 (100)
선배 주도(상급학교)의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 조성	2 (18.2)	9 (81.8)	11 (100)
$\chi^2(df), p$	5.481(3)		.140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5.481(3)$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4명). 다음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통합·설정'(15명), '선배 주도(상급학교)의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 조성'(11명), '초·중등 학생간 멘토링제 운영'(8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2.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 1) 교육계획서 통합·설계에 대한 의견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설계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9>와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설계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53.839(1)$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육계획서를 통합하여 설계하고 있다고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9>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그렇다	43 (11.1)	346 (88.9)	389 (100)
아니다	56 (38.9)	88 (61.1)	144 (100)
$\chi^2(df), p$	53.839(1) .000***		

\*\*\*  $P<.001$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설계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0>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설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1.294(1)$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육계획서를 통합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10>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그렇다	36 (13.1)	239 (83.9)	275 (100)
아니다	63 (24.4)	195 (75.6)	258 (100)
$\chi^2(df), p$	11.294(1)		.001**

\*\* P<.01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중 또는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45 (46.4)	52 (53.6)	97 (100)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수준이 다르기 때문	12 (14.6)	70 (85.4)	82 (100)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	3 (7.9)	35 (92.1)	38 (100)
초·중 또는 중·고 학교급간 학생 지도방식이 다르기 때문	3 (7.7)	36 (92.3)	39 (100)
기타	0 (0)	2 (100)	2 (100)
$\chi^2(df), p$	41.809(4)		.000***

\*\*\* P<.001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1.809(4)$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로 ‘초·중 또는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97명). 다음으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수준이 다르기 때문’(82명), ‘초·중 또는 중·고 학교급간 학생 지도방식이 다르기 때문’(39명), ‘초등교

육과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38명), 그리고 '기타'(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초·중 또는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45명)'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수준이 다르기 때문(70명)'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2)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2>와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3.367$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12>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2.92	1.122	-3.367	.001**
학부모	434	3.34	1.137		

\*\*  $P<.01$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과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	20 (33.9)	39 (66.1)	59 (100)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 연수과정 설치	1 (16.7)	5 (83.3)	6명 (100)
통합운영학교 교과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	13 (29.5)	31 (70.5)	44명 (100)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 교원 우선 배치	2 (16.7)	10 (83.3)	12명 (100)
기타	1 (100)	0 (0)	1명 (100)
$\chi^2(df), p$	4.256(4)		372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과 교육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256(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으로 ‘교과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59명).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교과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44명),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 교원 우선 배치’(12명),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 연수과정 설치’(6명), ‘기타’(1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3) 학교급간 수업 지원에 대한 의견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4>와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646$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14>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2	1.159	-.646	.519
학부모	434	3.41	1.075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 반대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	4 (40.0)	6 (60.0)	10 (100)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13 (25.5)	38 (74.5)	51 (100)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	8 (22.2)	28 (77.8)	36 (100)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	7 (31.8)	15 (68.2)	22 (100)
$\chi^2(df), p$	1.596(3)		.660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 반대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596(3)$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 반대 이유’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51명). 다음으로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36명),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22명), ‘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10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6>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24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16>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59	1.020	1.242	.216
학부모	434	3.44	1.021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	2 (100)	0 (0)	2 (100)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7 (15.9)	37 (84.1)	44 (100)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	9 (25.7)	26 (74.3)	35 (100)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	3명 (15.0)	17 (85.0)	20 (100)
$\chi^2(df), p$	9.178(3)		.027*

\* P<.05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9.178(3)$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44명). 다음으로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35명),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20명), ‘초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9명)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37명)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4)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8>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24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18>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3	.969	-1.728	.086
학부모	434	3.52	.995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창의적 체험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	10 (35.7)	18 (64.3)	28 (100)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	3 (25.0)	9 (75.0)	12 (100)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침 개발	4 (28.6)	10 (71.4)	14 (100)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 지원 확대	2명 (14.3)	12 (85.7)	14 (100)
기타	1 (100)	0 (0)	1 (100)
$\chi^2(df), p$	4.629(4)		.327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629(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8명).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침 개발’(14명),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 지원 확대’(14명),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12명), 그리고 ‘기타’(1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5)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0>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3.604$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20>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09	1.021	-3.604	.000***
학부모	434	3.50	0.978		

\*\*\*  $P<.001$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방과후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	19 (55.9)	15 (44.1)	34 (100)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	1 (20.0)	4 (80.0)	5 (100)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	5 (29.4)	12 (70.6)	17 (100)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 지원 확대	2 (15.4)	11 (84.6)	13 (100)
기타	1 (50.0)	1 (50.0)	2 (100)
$\chi^2(df), p$	8.598(4)		0.72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8.598(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34명).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17명),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 지원 확대’(13명),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13명), 그리고 ‘기타’(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3.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인사

#### 1) 교장 임용방식 및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임명제(순환근무제)	42 (27.1)	113 (72.9)	155 (100)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32 (15.2)	179 (84.8)	211 (100)
내부형 공모제(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포함)	7 (13.5)	45 (86.5)	52 (100)
개방형(교육계 외부인사도 포함)	18 (15.7)	97 (84.3)	115 (100)
$\chi^2(df), p$	10.613(3)	.014*	

\*  $P<.05$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0.613(3)$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11명). 다음으로 ‘임명제(순환근무제)’(155명), ‘개방형(교육계 외부인사도 포함)’(115명), ‘내부형 공모제(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포함)’(5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임명제(순환근무제)’(42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179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3>과 같다.

<표 IV-23>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상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33 (20.9)	125 (79.1)	158 (100)
하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7 (16.7)	35 (83.3)	42 (100)
학교 여건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59 (17.7)	274 (82.3)	333 (100)
$\chi^2(df), p$	.821(2)		.663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821(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333명). 다음으로 ‘상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158명), ‘하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4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2)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4>와 같다.

<표 IV-24>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생수에 관계없이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	54 (26.1)	153 (73.9)	207 (100)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	37 (15.2)	207 (84.8)	244 (100)
학생수에 관계없이 1인만 배치	8 (9.8)	74 (90.2)	82 (100)
$\chi^2(df), p$	13.817(2)	0.001**	

\*\* P<.01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3.817(2)$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44명). 다음으로 ‘학생수에 관계없이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207명), ‘학생수에 관계없이 1인만 배치해야 한다’(8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학생수에 관계없이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54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207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3)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5>와 같다.

<표 IV-25>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	40 (22.2)	140 (77.8)	180 (100)
초·중등 복수자격을 보유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20 (11.2)	158 (88.8)	178 (100)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	39 (22.3)	136 (77.7)	175 (100)
$\chi^2(df), p$	9.516(2)	0.009**	

\*\* P<.01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9.516(2)$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180명). 다음으로 ‘초·중등 복수자격을 보유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178명),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해야 한다’(175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해야 한다’(40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초·중등 복수자격을 보유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158명)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4)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chi^2(df)$	p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공모	33 (16.9)	162 (83.1)	195 (100)	1.208(2)	.547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	39 (18.2)	175 (81.8)	214 (100)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하되 겸직발령	27 (21.8)	97 (78.2)	124 (100)		
$\chi^2(df), p$	1.208(2)		.547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2086(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14명).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공모해야 한다’(195명),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하되 겸직발령을 내야 한다’(124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5)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교급간 업무분장 조직 유지	74 (21.2)	275 (78.8)	349 (100)
학교급 구분 없이 업무분장 조직 통합·구성	25 (13.7)	158 (86.3)	183 (100)
$\chi^2(df), p$	4.744(2)		.093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744(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으로 ‘학교급간 업무분장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349명).

#### 6)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8>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10.009$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직원 업무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28>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2.26	1.084	-10.009	.019*
학부모	434	3.34	.942		

\*  $P<.05$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29>와 같다.

<표 IV-29>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교 행사 통합·운영	8 (53.3)	7 (46.7)	15 (100)
업무분장 조직 통합·구성	8 (47.1)	9 (52.9)	17 (100)
문서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의 일원화	13 (59.1)	9 (40.9)	22 (100)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행정업무보조인력 배치	28 (57.1)	21 (42.9)	49 (100)
기타	1 (100)	0 (0)	1 (100)
$\chi^2(df), p$	1.488(4)		.829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1.488(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업무보조원 배치’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49명). 다음으로 ‘문서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의 일원화’(22명), ‘업무분장 조직 통합·구성’(17명), ‘학교 행사 통합·운영’(15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4. 통합운영학교의 행정 및 재정

##### 1) 예산 절감 효과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0>과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2.47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30> 예산 절감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30	.984	-2.474	.015*
학부모	434	3.57	.881		

\*  $P<.05$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학교 행사 통합·운영	1 (25.0)	3 (75.0)	4 (100)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8 (42.1)	11 (57.9)	19 (100)
인적자원 공동 활용	1 (14.3)	6 (85.7)	7 (100)
행정 사무의 통합	5 (45.5)	6 (54.5)	11 (100)
기타	1 (100)	0 (100)	1 (100)
$\chi^2(df), p$	3.981(4)		.409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예산 절감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3.981(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예산 절감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19명). 다음으로 ‘행정 사무의 통합’(11명), ‘인적자원 공동 활용’(7명), ‘학교 행사 통합·운영’(4명), 그리고 ‘기타’(1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2)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2>와 같다.



<표 IV-32>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단일화된 통합대장 사용	47 (17.5)	221 (82.5)	268 (100)
학교급별로 별도의 대장 사용	52 (19.6)	213 (80.4)	265 (100)
$\chi^2(df), p$	.383(1)		.536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383(1)$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공문서 및 대장 관리 단일화에 대한 의견’으로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해야 한다’를 높게 응답하였다(268명).

교직원은 ‘학교급별로 별도의 대장을 사용해야 한다’(52명)라는 항목에서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해야 한다’(221명)는 항목에서 높게 응답하였다.

### 3)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3>과 같다.

<표 IV-33>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도교육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	22 (22.7)	75 (77.3)	97 (100)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	12 (11.5)	92 (88.5)	104 (100)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19.6)	267 (80.4)	332 (100)
$\chi^2(df), p$	4.707(2)		.095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4.707(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332명). 다음으로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104명),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도교육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97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4)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4>와 같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t=-.284$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34>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

구분	N	M	SD	t	p
교직원	99	3.64	.863	-.284	.777
학부모	434	3.66	.850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5>와 같다.

<표 IV-35>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1	1	2
초·중등간 수업시종의 일치	(50.0)	(50.0)	(100)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6 (37.5)	10 (62.5)	16 (100)

구분	교직원	학부모	전체
초·중등간 통합시간표 편성	0 (0)	3 (100)	3 (100)
초·중등간 특별교실 및 기자재 관리자 지정 일원화	1 (25.0)	3 (75.0)	4 (100)
기타	0 (0)	0 (0)	0 (0)
$\chi^2(df), p$	2.022(3)		.568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chi^2(df)=2.022(3)$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16명). 다음으로 ‘초·중등간 특별교실 및 기자재 관리자 지정 일원화’(4명), ‘초·중등간 통합시간표 편성’(3명), ‘초·중등간 수업시중의 일치’(2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5.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

### 1)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6>과 같다.

<표 IV-36>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38 (22.1)	134 (77.9)	172 (100)	11 (16.9)	54 (83.1)	65 (100)	17 (20.5)	66 (79.5)	83 (10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11 (10.1)	98 (89.9)	109 (100)	24 (17.3)	115 (82.7)	139 (100)	20 (21.3)	74 (78.7)	94 (100)
학생 생활지도 용이 및 학교질서(고학년 활용) 용이	8 (11.3)	63 (88.7)	71 (100)	9 (9.4)	87 (90.6)	96 (100)	32 (23.7)	103 (76.3)	135 (100)
시설, 교구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32 (30.2)	74 (69.8)	106 (100)	30 (26.1)	85 (73.9)	115 (100)	15 (19.5)	62 (80.5)	77 (100)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등 학제 운영상의 유연성 제고	3 (30.0)	7 (70.0)	10 (100)	1 (2.9)	34 (97.1)	35 (100)	1 (2.6)	38 (97.4)	39 (100)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의 태도 및 심리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가능	7 (10.8)	58 (89.2)	65 (100)	24 (28.9)	59 (71.1)	83 (100)	14 (13.3)	91 (86.7)	105 (100)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의 1순위로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172명), 이는 교직원의 38.4%, 학부모의 30.9%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2순위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139명)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24.2%, 학부모의 26.5%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3순위로는 ‘학생 생활지도 용이 및 학교질서(고학년 활용) 유지’(135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32.3%, 학부모의 23.7%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의 1순위 중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172명)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109명), ‘시설, 교구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106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2)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7>과 같다.

<표 IV-37>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통합운영학교의 관리 지침 미비	22 (17.3)	105 (82.7)	127 (100)	26 (36.6)	45 (63.4)	71 (100)	15 (17.4)	71 (82.6)	86 (100)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	49 (37.4)	82 (62.6)	131 (100)	21 (17.1)	102 (82.9)	123 (100)	13 (15.7)	70 (84.3)	83 (100)
소규모로 교과수업, 학생행사를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것	6 (5.3)	107 (94.7)	113 (100)	14 (13.3)	91 (86.7)	105 (100)	9 (11.0)	73 (89.0)	82 (100)
초·중등 겸임교사 발령·배치 미흡	6 (11.8)	45 (88.2)	51 (100)	17 (18.5)	75 (81.5)	92 (100)	17 (18.5)	75 (81.5)	92 (100)
동일 학교 취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 저하	13 (17.8)	60 (82.2)	73 (100)	15 (14.9)	86 (85.1)	101 (100)	26 (23.9)	83 (76.1)	109 (100)
통합운영학교 경영 방법 미숙	3 (7.9)	35 (92.1)	38 (100)	6 (15.0)	34 (85.0)	40 (100)	19 (23.5)	62 (76.5)	81 (100)
기타	0 (0)	0 (0)	0 (0)	0 (0)	1 (100)	1 (100)	0 (0)	0 (0)	0 (0)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의 1순위로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131명), 이는 교직원의 37.4%, 학부모의 62.6%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2순위로도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123명)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21.2%, 학부모의 23.5%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3순위로는 ‘동일 학교 취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 저하’(109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26.3%, 학부모의 19.1%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의 1순위 중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131명)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관리 지침 미비’(127명), ‘소규모로 교과수업, 학생행사를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것’(113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3)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38>과 같다.

<표 IV-38>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교직원	학부모	전체
지도·관리를 위한 관할청의 일원화	21 (14.2)	127 (85.8)	148 (100)	9 (12.0)	66 (88.0)	75 (100)	14 (17.1)	68 (82.9)	82 (100)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	37 (21.3)	137 (78.7)	174 (100)	19 (16.8)	94 (83.2)	113 (100)	9 (14.3)	54 (85.7)	63 (100)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마련	16 (18.6)	70 (81.4)	86 (100)	21 (16.9)	103 (83.1)	124 (100)	18 (15.8)	96 (84.2)	114 (100)
통합운영학교 행정·사무의 통합	12 (30.0)	28 (70.0)	40 (100)	24 (25.3)	71 (74.7)	95 (100)	20 (26.7)	55 (73.3)	75 (100)
초·중등 복수자격 소지 교원의 확보	2 (4.1)	47 (95.9)	49 (100)	10 (13.3)	65 (86.7)	75 (100)	12 (14.8)	69 (85.2)	81 (100)
학교실정을 고려한 행정직원 및 사무보조인력 배치	11 (30.6)	25 (69.4)	36 (100)	16 (31.4)	35 (68.6)	51 (100)	26 (22.0)	92 (78.0)	118 (100)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174명), 교직원의 37.4%, 학부모의 31.6%가 응답하였다. 2순위로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 마련’(124명)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교직원의 21.2%, 학부모의

23.7%가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학교실정을 고려한 행정직원 및 사무보조인력 배치’(118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교직원의 26.3%, 학부모의 21.2%가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 중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174명)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도·관리를 위한 관할청의 일원화’(148명),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마련’(86명)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학교 효과성 요인,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 운영 방향, 유형, 통합운영학교의 추진과정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외국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5개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1개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모든 교직원 190명과 한국부티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제외한 모든 학부모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생활지도,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연구문제 1)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신장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학력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성 계발 효과’, ‘생활지도 효과’, ‘인성교육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합운영 학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 마련’,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설계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으며,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육계획서를 통합하여 설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계획서 통합 설계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도 유의미하였으며,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육계획서를 통합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육계획서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로 ‘초·중 또는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과 교육활동의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 개선방안’으로 ‘교과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셋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과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중등교과 지도 반대 이유’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로는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중등 교사의 초등 교과 지도 반대 이유’로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을 가장 높게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으며,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섯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임용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는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직원은 ‘임명제(순환근무제)’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 가장 높게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장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교 여건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여섯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직원은 ‘학생수에 관계없이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 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직원은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초·중등 복수자격을 보유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여덟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업무분장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교급간 업무분장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직원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업무보조원 배치'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아홉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공문서 및 대장 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해야 한다'를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직원은 '학교급별로 별도의 대장을 사용해야 한다'를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에 학부모는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해야 한다'를 높게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번째,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그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도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통합 활용·관리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연구문제 3)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 효과, 문제점,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의 1순위로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순위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학생 생활지도 용이 및 학교질서(고학년 활용) 유지’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의 1순위 중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시설, 교구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의 1순위로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순위로도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동일 학교 취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 저하’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의 1순위 중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관리 지침 미비’, ‘소규모로 교과수업, 학생행사를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것’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셋째,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

대'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순위로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학교실정을 고려한 행정직원 및 사무보조인력 배치'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 중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도·관리를 위한 관할청의 일원화',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마련' 순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2.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연구 요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본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및 특정교과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교과담당교사의 학습지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계발을 위해서는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계발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기구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내 통합운영학교는 모두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어 문화적 혜택이 덜하고, 초·중 통합은 9년, 중·고 통합은 6년간 집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정체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칫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측면에서 볼 때 통합운영학교는 형제자매의 연계로 인해 가정환경 파악이 용이하고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의 태도 및 심리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급학교 학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급학교 학생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 고학년 학생을 활용한 학교질

서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하급학교 학생의 모방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급간 격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 마련, 통합운영학교 생활지도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 교환, 학교급을 달리 하는 교원을 부담임으로 배치,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통합하여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의무교육과 국민공통기본교육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리고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중등교육의 계열성 심화와 다양화 차원에서 교육계획서를 통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 그리고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의 효과를 위해 교과 교육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과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의 효과를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탄력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성패는 학교급이 통합된 학교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학교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임용과정 속에서 통합운영학교를 이끌어갈 비전, 교원통합 방안, 전문성 신장 방안, 학생지도 방안을 엄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감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제주지역의 대부분 통합운영학교가 소규모 학교인 점과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학생수에 관계없

이 학교급별로 1인씩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원인 경우는 현행의 순환근무제를 지양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며, 교과과정의 통합 운영은 복수 자격 소지자의 확보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수 자격 소지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영어전용교실, 다목적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 특별교실 등의 공동 활용, 빔 프로젝터 등 고가의 교육기자재 공동 이용 등 물적 자원의 공동 운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의 정비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과정 통합 운영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문서가 2중으로 올 수 있는데, 공문을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하나로 처리할 수 있고 각종 대장 관리를 일원화 한다면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공문서 전달 및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공문서 이중 전달 등 사무 통합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운영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제주지역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지도·감독청을 명확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합운영학교는 학생수의 부족으로 독립적 운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통합운영 체제로 변화시켜 교육활동 통합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까지도 개선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간 통합 운영으로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교

육활동, 예체능 분야, 그리고 각종 학교행사 등 상대적으로 학교급간 협력이 쉬운 영역부터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운영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도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통합운영학교 교육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및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인적 자원의 공동 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은 복수 자격 소지 교원의 확보 없이는 어려우므로 학교급별 복수 자격 소지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지자격증별 교과수업 겸임,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 및 수준별 수업교과 겸임 확대 등 초·중등 상호지원 체제 유지,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겸임 발령 등을 통해서도 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방과후활동,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과 입학식,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사무관리, 행정업무, 회계업무 등의 관리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직원 및 사무보조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통합운영학교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고가의 교육기자재, 각종 학교 시설 및 특별교실 등의 공동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블록타임제 운영을 통한 수업시중의 일치, 초·중등 학생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교구·기자재의 확충, 특별교실 및 기자재 관리자 일원화, 통합운영학교 교구·설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 3. 제언

이상에서 논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합운영학교 표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을 적용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과 교육성과에 대한 기초연구와 향후 정책을 세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운영의 방식, 교육과정 운영, 교사 활용, 관리자 및 교원 조직, 학생 생활지도, 수업협력, 시설공유 및 공동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등 각 분야별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과 전국의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제주지역만의 지역적 특성,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추세라면 향후 농어촌 학교는 계속해서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예산 지원, 학생 복지 등에서 읍 이상 도시 소재 학교와는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 학교의 환경적, 구조적 조건 하에서 농어촌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학교 지원 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강대중(2005). 초·중 통합학교의 교과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정삼(1996). 학교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강태중(1995). 학교효과연구의 조망. 한국교육학소식, 31(2).
- 곽수란(2002). 효과적인 학교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교육개혁위원회(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 제3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0. 1. 5.).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육성.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지원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2). 지방교육행정의 성과와 전망.
-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 구중필(2001).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기동환(2011). 통합운영학교 수준에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 분장방안.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개선방안 탐색 워크숍 자료집.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 김두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행할 듯. 호남교육뉴스. 2009. 8. 27.
- 김미선(2008). 강원도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성(1986). 효과적인 학교 학습풍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병성(2004). 학교효과론. 서울: 학지사.
- 김선중(2004).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순례(1999).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의 경제적 효과 추정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규(1999).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초·중 연계교육과정 운영 방안. 교육과정분과 현장 연구보고서, 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영수(1999). 초·중학교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조(2002). 초·중학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우 외(1992).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개발원.
- 김재원(2001). 통합운영학교 개선방안. 교육전남 제98호
- 김창걸(1984). 교장의 지도성 행위·상황 및 조직 효과성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학순(1998). 초·중학교 통합운영제에 따른 학교경영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경미(2005).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 농촌여성신문. 소규모 학교 종합 육성방안 추진. 2009. 8. 31.
- 박민재(2005).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반상진(1995). 학교교육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정의 역할과 과제. 건축역사: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14.
- 배연미(2012).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장 리더십과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용숙(2004).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교원의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기선(1997).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성기선(1998). 학교효과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원미사.
- 신상구(2008). 초·중학교 통합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신석근(2002). 초·중 통합학교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진희(2004). 제주도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애(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우(2001). 통합운영학교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효영(2006).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초등과 중등교원간의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성모(2008). 통합운영학교 실태 분석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정소연(2010). 초·중 통합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윤득(1998). 효과적인 학교를 결정하는 과정변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2012 ~ 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조기수(2004). 초·중 통합학교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윤주.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지원확대. 파이낸셜뉴스. 2010. 1. 6.
- 최준렬 외(1996).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방안 연구. 초중등학교통합운영연구위원회.
- 최희경(2001). 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대한 기대와 실제 인식차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신문. 일본: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립 중·고 일관학교. 2006. 4. 11.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1).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탐색.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농어촌 학교 육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 가이드라인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 한대동(1991).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동향.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7.
- 홍광식(2009). 일본의 초·중 일관교육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2), 103-120.
- 홍후조 외(1999). 초중등 통합 운영 학교의 효율적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초중등 학교통합운영연구위원회.
- Alexander, W. & McEwin, K.(1989). Schools in the middle: Progress 1968-1988.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27000).
- Brookover, W. B., Beay, C. Flood, P., Schweitzer, J. & Wisenbaker, J.(1979). Schools,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New

- York: Praeger.
- Conley, D. T.(1993). Roadmap to restructuring: policies, practices and the emerging vision of schooling. Oregon: ERIC(Clearinghouse on Educational Management), 106.
- Edmonds, R. R.(1979). Effective School for the Urban Poor. Educational Leadership, 37, 15-23
- Joyce, B. R., Hersh, R. H. & Mckibbin, M.(1983). The Structure School Improvement. New York: Longman Inc., 24-29
- Levine, D. U., & Lezotte, L. W.(1990). Usually Effective Schools: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WI: The National Center of Effective Schools Research and Development.
- Look, K.(2001). The great K-8 debate.
- Mortimore, P., Sammons, P., Stoll, L., Lewis, D. & Ecob, R.(1988). School Matters: The Junior Years. Somerset: Open Books.
- Paglin, C., Fager, J.(1997). Grade Configuration: Who Goes Where?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Ouston, J. & Smith, A.(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s, A.(2011). Tulsa Students Adjusting To Combined Junior, Senior Schools. Newson6. Tulsa, Oklahoma.
- Wikipedia(2011).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for the  
Integra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Management in Jeju**

**-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Teacher, Staff and Parents -**

**Kim, Hong J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Lee, In Hoi**

The original purpose of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is to change the system of schools regarded not to meet the needs for universal education through independent operation for the lack of students in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nhance school effectiveness by using educational resources connectively, operating educational activities integrately, or organizing student groups integratel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actual status of integrated management centering arou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also whether they are being opera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foundation and essentials so as to provide development plans for it. To attain the study goal, this paper

formulates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First, are the integrated managem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eing opera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foundation and essentials?

Second, how are the teaching staff and parents belonging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cognizing the operation of the schools?

Third, what are the development plans and tasks to do for the current integrated managem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solve these study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o all the teaching staff of 190 at 5 integrated managem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1 integrated management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also 813 parents excluding the ones of the third graders at Korea Beauty High School. And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teaching staff and parents o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educational goals, curriculum, life guidance, personnel affairs for teaching staff, and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study attempts to build development plans.

And the study has drawn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 it is needed for lower school teachers to support learning for underachieved students and also for upper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subjects to support learning for students excellent at a certain subject. And to develop sociability, it is necessary to operate sociability development programs in whic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can participate together and also integrate and operate independent student bodies. In particular,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in Jeju are all located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o they see fewer cultural benefits, and in cas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tegration for 9 years and middle and high school integration for 6 years, there is almost no group change, and they have to stay in a stagnant environment, which may lead to reducing their

interest in school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opportunities for field study to experience various social, cultural, art, or sport programs through the shared utilit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econd, from the aspects of life guidance and personality educatio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are more advantageous in that it can figure out students' family environment more easily with the connectivity of siblings, perform long-term observation, and also recognize how students' attitudes and psychology change. And having upper school students itself plays roles in controlling lower school students, so using higher-grade students, it is possible to maintain school order. However, upper school students' bad behavior may cause lower school students' imitative learning, so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levels of schools, it is necessary to devise various plans for life guidance and personality education.

Third, for the effects of integrating and operating subject matter education activity,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and after-school education activity, it is needed to secure autonomy for the flexible operation of those activities. And according to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integration · operation guidance. Moreo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depends on what reasonable criteria are adopted to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to arrange teaching staff; thus, it is urgent to make criteria to arrange teaching staff including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regional or schoo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Fourth, for the efficient utility of educational resources, it is needed to promote shared utility and extens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teachers having double licenses applicable to several levels of schools, appoint adjunct teaching staff, integrate the school bell system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block time system, increase facilities as well as teaching aids and apparatus that can be used by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ogether, and unify special classes and apparatus managers, and also build standards for the teaching aids and equipment at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부록】**

**제주지역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학생 김홍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교직원과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를 통해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교육발전과 학생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설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분석결과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 이 인 회 교수

석사과정 : 김 홍 진

연 락 처 : 010-8624-3805

이 메 일 : [am937bus@korea.kr](mailto:am937bus@korea.kr)

I.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귀교는 교육계획서를 초·중 또는 중·고 통합하여 설계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초·중 또는 중·고 학교급간 통합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2-1. (2번에 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교육계획서를 학교급간 분리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초·중 또는 중·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②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수준이 다르기 때문  
 ③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  
 ④ 초·중 또는 중·고 학교급간 학생 지도방식이 다르기 때문  
 ⑤ 기타 ( \_\_\_\_\_ )
3. 초·중 또는 중·고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3-1. (3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효과적인 교과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과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  
 ②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 연수과정 설치  
 ③ 통합운영학교 교과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  
 ④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 교원 우선 배치  
 ⑤ 기타 ( \_\_\_\_\_ )

4. 통합운영학교에서 초등 교과전담교사(영어, 예술, 체육 등)가 중등학교 해당 교과지도를 일부 맡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4-1. (4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만일 반대한다에 응답한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
- ②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 ③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
- ④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
- ⑤ 기타 ( \_\_\_\_\_ )

5. 통합운영학교에서 중등 교사가 초등학교 교과(영어, 예술, 체육, 과학 등)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5-1. (5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만일 반대한다에 응답한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
- ②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 ③ 초등과 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 상의 차이 때문
- ④ 교수학습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
- ⑤ 기타 ( \_\_\_\_\_ )

6. 초·중 또는 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1. (6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의적 체험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
- ②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
- ③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침 개발
- ④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 지원 확대
- ⑤ 기타 ( \_\_\_\_\_ )

7. 초·중 또는 중·고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1. (7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과후 교육활동 탄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 확보
- ②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교원 연수과정 설치
- ③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침 개발
- ④ 통합운영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 지원 확대
- ⑤ 기타 ( \_\_\_\_\_ )

**II.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목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통합운영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1. (8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등 학생간 학습동아리 통합·운영
- ②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하급학교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 ③ 특정 교과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교과담당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 ④ 주요 교과에 대한 겸임교사 배치
- ⑤ 기타 ( \_\_\_\_\_ )

9. 통합운영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사회성 계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1. (9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사회성 계발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자치기구의 통합 운영
- ② 학교 행사의 통합 운영
- ③ 초·중등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 ④ 초·중등 학생간 동아리 활동 통합·운영
- ⑤ 기타 ( \_\_\_\_\_ )

10. 통합운영학교 운영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1. (10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급을 달리하는 교원을 부담임으로 배치
- ②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협의체 운영
- ③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 교원 연수과정 설치
- ④ 통합운영학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 마련
- ⑤ 기타 ( \_\_\_\_\_ )

11. 통합운영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1. (11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등 학생간 멘토링제 운영  
②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통합·운영  
③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통합·설정  
④ 선배 주도(상급학교)의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 조성  
⑤ 기타 ( \_\_\_\_\_ )

**Ⅲ.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통합운영학교 교장 임용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명제(순환근무제)  
②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③ 내부형 공모제(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포함)  
④ 개방형(교육계 외부인사도 포함)

13.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교장 배치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은 상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은 하급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학교급 교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14.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교감 배치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수에 관계없이 학교별로 교감 1인씩 배치해야 한다  
②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감 1인만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학교별로 교감 1인씩 배치해야 한다  
③ 학생수에 관계없이 교감 1인만 배치해야 한다

15.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교원 배치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공모해야 한다
- ② 초·중등 복수자격을 보유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③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해야 한다
- ④ 기타 ( \_\_\_\_\_ )

16.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공모해야 한다
- ②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해야 한다
- ③ 현행대로 순환근무제로 배치하되 검직발령을 내야 한다
- ④ 기타 ( \_\_\_\_\_ )

17. 통합운영학교에서 업무분장 조직 형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급간 업무분장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 ② 학교급 구분 없이 업무분장 조직을 통합·구성해야 한다
- ③ 기타 ( \_\_\_\_\_ )

18. 통합운영학교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1. (18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행사 통합·운영
- ② 업무분장 조직 통합·구성
- ③ 문서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의 일원화
- ④ 행정업무보조인력 배치
- ⑤ 기타 ( \_\_\_\_\_ )



IV. 통합운영학교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통합운영학교 운영이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9-1. (19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행사 통합·운영  
②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③ 인적자원 공동 활용  
④ 행정·사무의 통합  
⑤ 기타 ( \_\_\_\_\_ )
20. 통합운영학교의 각종 공문서 및 대장 관리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통합대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해야 한다  
② 학교급별로 별도의 대장을 사용해야 한다
21.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급별로 지도·감독청이 서로 달라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통합 후의 지도·감독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도교육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지도·감독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학교급간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통합하여 활용·관리하는 것이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1. (22번에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통합운영학교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통합하여 활용·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등간 수업시종의 일치  
 ②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③ 초·중등간 통합시간표 편성  
 ④ 초·중등간 특별교실 및 기자재 관리자 지정 일원화  
 ⑤ 기타 ( \_\_\_\_\_ )

**V.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일정 수준의 학생 규모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③ 학생 생활지도 용이 및 학교질서(고학년 활용) 유지  
 ④ 시설, 교구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⑤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등 학제 운영상의 유연성 제고  
 ⑥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의 태도 및 심리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가능  
 ⑦ 기타 ( \_\_\_\_\_ )

24. 통합운영학교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①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 미비
- ② 학교급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
- ③ 소규모로 교과수업, 학생행사를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것
- ④ 초·중등 겸임교사 발령·배치 미흡
- ⑤ 동일 학교 취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 저하
- ⑥ 통합운영학교 경영 방법 미숙
- ⑦ 기타 ( \_\_\_\_\_ )

25. 다음의 내용 중 통합운영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① 지도·관리를 위한 관할청의 일원화
- ②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
- ③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 마련
- ④ 통합운영학교 행정·사무의 통합
- ⑤ 초·중등 복수자격 소지 교원의 확보
- ⑥ 학교실정을 고려한 행정직원 및 사무보조인력 배치
- ⑦ 기타 ( \_\_\_\_\_ )

VI.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① 교직원            ② 학부모
2	귀하의 연령은?	① 20~30세 이하    ② 31~40세 이하   ③ 41~50세 이하 ④ 51~60세 이하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졸업
5	교원자격증 소지 유형은? (교원만 응답)	① 초등교원    ② 중등교원    ③ 초등, 중등교원
6	교직원의 유형은? (교직원만 응답)	① 교장          ② 교감          ③ 교사          ④ 일반직 ⑤ 기능직      ⑥ 학교회계직원
7	근무지는 ? (교직원만 응답)	① 제주시 읍면지역    ② 서귀포시 읍면지역 ③ 도서 지역
8	근무하는 학교 형태는? (교직원만 응답)	① 초·중 통합            ② 중·고 통합
9	교육경력은? (교직원만 응답)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10	거주지는 ? (학부모만 응답)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⑤ 도서 지역
11	자녀가 다니는 학교 형태는? (학부모만 응답)	① 초·중 통합            ② 중·고 통합
12	자녀의 학년은? (학부모만 응답)	① 초 1학년   ② 초 2학년   ③ 초 3학년   ④ 초 4학년 ⑤ 초 5학년   ⑥ 초 6학년   ⑦ 중 1학년   ⑧ 중 2학년 ⑨ 중 3학년   ⑩ 고 1학년   ⑪ 고 2학년   ⑫ 고 3학년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